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56. 두 증인이 살아남

2014. 01. 26.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이 새해도 이 방송을 애청하시기 바라고 깨닫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두 증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1:9~12]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되 10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 지난 시간에 3일 반 곧 3년 반 후에 성경의 금서 명령이 풀리고 교회당을 다시 열게 하고 주일제도를 회복시키는 조처를 함으로 3일반 후에 생기가 다시 두 증인에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구절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있고 다음에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답: 먼저 성경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계11:11,12]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3일 반은 3년 반이고 프랑스 국민의회가 성경을 금서로 결정하고 모아서 불사르던 그 결정을 한 때부터 그 결정을 폐기한 때까지 3년 반이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폐기하고 불사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성경의 영향력에 대한 것을 새롭게 깨닫고 느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3년 반 동안 프랑스 사회는 급속도로 부도덕하게 되고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들이 유행하고 국민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라부라 교회 철폐와 성경 금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반감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798년 2월 15일에 베르디에 장군 휘하의 프랑스 군인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난입하고 교황 피우스 6세를 체포해서 프랑스로 보내어 감옥에 수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섯째 나팔에 나타난 심판의 극명한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이슬람의 준동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상된 혁명기의 프랑스를

통하여 변질된 교회를 심판하는 것을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피우스 6세는 그 이듬해에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드디어 성전 마당을 짓밟는 기간 즉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성경이 널리 보급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진리를 짓밟는 세력이 약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증인이 구름타고 승천하는 것으로 표상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는데, 물론 상징적 표현입니다. 성경이 그 기능과 권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영영토록 보존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마귀가 힘을 합해서 말씀을 공격해도 결국 하나님께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시12:6,7] 여호와와 말씀은 순결함이며 흠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7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무렵 계몽운동이 일어나고 누구든지 글을 배워서 읽고 쓰고 셈할 줄 알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3R 운동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Reading, wRiting, Reckoning을 뜻합니다. 그래서 서민들도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이 시대에 소위 장자크 루소 같은 사상가들이 나타나서 계몽주의 사상을 제창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는 루소의 사상이 크게 반영된 것입니다. 또 이 무렵 제지업과 인쇄술이 장족의 발전을 하여 책을 출판하는 일이 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유명한 메리 존스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2. 메리 존스 사건? 예, 언젠가 이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갔습니다만 오래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됩니다.

답: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이야기했는지 저도 아삼아삼합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에 가난한 집안의 소녀 메리 존스가 자기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어서 8년간 일해서 성경 한권 값을 장만했지요. 그렇게 했을 때 메리는 16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세부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돈을 조금씩 모았는데 16살이 되었을 때 성경 한권 값이 모인 것입니다. 어떤 기록을 보니 18세라고 했네요. 그 기록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옛날에 읽은 기억으로 늘 16살이라고 했는데, 18살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때 웨일즈에서 성경을 출판했는지 웨일즈 성경이라고 해서 빨라에 사는 찰스 목사님이 그 성경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메리는 30Km을 걸어서 찰스 목사님집에 갔을 때 더 이상 웨일즈 성경이 출판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찰스 목사님은 자기 성경을 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야 천국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이 언제 이루어지겠나, 깊이 생각하고 그해 1802년 12월에 런던에서 기독교 서회 회의에 참석하여 메리 이야기를 전하고 모두 감동을 받은 회원들이 마음을 합해서 성서공회를 창립하기로 하고 1804년 3월 7일에 대영성서공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여러 나라에서 성서공회가 설립이 되었는데 1814년에는 네덜란드 성서공회, 1816년에는 미국성서공회, 1826년에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등 많은 성서공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147개국에 성서공회 연합회 회원국이고 200여개 국이

성경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 메리 존스의 일로 성경이 온 세상에 높이 들리게 되었지요. 이렇게 해서 19세기가 선교의 세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다는 상징적 말로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은 여전히 베스트셀러이지요. 현재 성경은 2000방언 이상으로 번역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만 한국에서 약 1천 5백 5십여만 부의 개역개정판 성경이 보급되었습니다. 그 외에 개역판이나 현대 새로 번역된 성경까지 합하면 엄청난 부수가 됩니다. 작년에 114개국에 203개 언어로 총 6,068,252부의 해외 성서를 제작하여 수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원수들이 구경하더라고 상징적인 표현을 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력은 가능한 한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데, 그 성경이 이렇게 요원의 불길처럼 온 세상에 번져나가니까 속수무책이지요. 이제는 그들도 성경을 새로 번역하고 출판해서 공급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들이 구경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고 한 12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상징적으로 주어진 계시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흔두 달이 1260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전마당이 거룩한 성 곧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지키고 있는 참 교회를 뜻하는 것임을 깨달으면 이런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3. 그런데 다음 구절은 그 시에 큰 지진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답: 먼저 13절을 읽고 설명을 이어나가기로 합시다.

[계11:13]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시라는 것은 두 증인인 성경이 3년 반 동안 폐지되었다가 회복되는 그 역사적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회복되었지만 성경을 폐지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주일제도를 변경한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상된 프랑스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엄청 피해를 쳐서 도덕과 사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성 10분의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큰 성이 바벨론을 뜻하는 것을 상기하고 바벨론을 구성하는 세력권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상징된 세력은 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제국로마가 게르만 민족에게 망하면서 게르만의 10개의 민족들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2장에 우상의 10 발가락이나 7장의 넷째 짐승의 열 뿔이 이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것들은

- ① 앵글로 색슨……오늘의 영국
- ② 프랑크……오늘의 프랑스
- ③ 알레마니……오늘의 독일
- ④ 롬바르드……오늘의 이태리
- ⑤ 부르군디아……오늘의 스위스
- ⑥ 수에바이……오늘의 포르투갈
- ⑦ 비시고트……오늘의 스페인
- ⑧ 오스트로고트……망하고 없어짐

⑨ 반달스……망하고 없어짐

⑩ 헤롤리……망하고 없어짐

입니다. 이 나라들이 다 큰 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었지요. 그 중에 프랑크가 오늘날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 이 열 구성원 중에 하나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10분지 1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아니라 지진이 난 것 같은 소동이 벌어져서 국기(國基)가 무너지고 그 소동 중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7000이 되었다는 것인데, 전체가 상징적인 언어로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 수를 실제 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아합왕 때에 바알을 섬기는 정치적 권력을 잡은 자들의 핍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죽임을 당하거나 다 변절하고 엘리야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11장에서는 프랑스의 그런 성경을 핍박하고 불사르고 주일제도를 변경하는 소동에서 죽은 자가 7000인입니다. 이것은 혁명소동 중에 실제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상징적 숫자도 되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철저한 패배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성경을 불사르고 핍박한 세력의 철저한 패배를 표현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7000이라는 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완전한 패배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7은 완전수이고 1000은 충만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충만하게 패배했다는 것이지요.

4. 아, 그렇게 설명이 되는군요. 그렇다고 믿어집니다. 정말 그들의 완전한 패배입니다. 성경은 살아나서 다시 권세를 얻어서 온 세상을 뒤덮게 되고 성경을 핍박한 세력은 지리멸렬하게 되었으니 그 설명이 아주 딱 맞네요.

답: 예, 그런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벌어진 참담한 결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예배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보급되게 되었지요. 그러나 프랑스는 진리를 따라 온전히 개혁된 교회를 크게 환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크게 다른 뜻은 없고 프랑스에서 성경을 따라 개혁한 교회가 왕성하지 못하니까요.

5. 아,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답: 다음 구절 14절이지요. 한 번 읽어봅시다.

[계11:14]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말씀이 둘째 화가 11장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둘째 화 곧 여섯째 나팔에 예언된 사건이 이슬람의 변질된 교회를 심판하는 침략이 있고, 그 연장선에서 프랑스 혁명으로 진리의 증인인 성경을 죽이는 사건까지 있는 후에 다니엘서에 예언된 2300주야에 대한 계시가 이해되고 다시 예언하는 일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째 화가 지나갔지만 셋째 화가 곧 닥칠 것인데, 그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6. 계시된 예언대로라면 셋째 화로 모든 화가 끝나는 것이 되겠군요?

답: 그렇지요. 셋째 화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죄와 죄에 속한 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그리고 천년기간이 지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세계가 실현되니까. 화로는 셋째 화가 끝입니다. 그러면 15절을 읽어봅시다.

[계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8절까지 읽어야 연결이 되지만 15절을 살핀 후에 계속해서 다음 구절들을 살피기로 하고, 15절 예언을 살펴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다. 8장에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았는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들이 11장 13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누가 하는 소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요. 어쩌면 하늘의 천군천사들의 합창하는 소리일 수도 있지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일이 이제 막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아마도 신명이 나서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말하는 음성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라고 했으니 크게 외치는 음성의 주인공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서 크게 외치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 것이 확실하지요. 그러니까 천군천사들의 음성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첫째,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단체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어디에 건설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7. 예,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하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겠지요. 우리는 성경 본문을 정말 주의 깊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가 된다고 했네요. 그런데 다른 곳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답: 물론 있지요. 가장 확실한 것이 다니엘서 2장의 우상으로 보여준 세계의 역사입니다. 이미 다니엘서에서 공부했는데, 금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은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이고 놋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철로 된 다리 종아리는 제국 로마입니다. 이 로마는 게르만 민족 대 이동에 멸망해서 게르만 민족들로 구성된 10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까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그 10나라에 대하여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 열국으로 갈라진 그 어느 때에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발과 발가락을 치니까 그 우상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날아가고 그 우상을 친 돌이 우상이 서 있던 그 자리에서부터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우상이 서 있던 자리는 바로 이 지구,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구, 이 세상에 건설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준 장면입니다. 거기에 계11:15이 또 확증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고 계20:7~9에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읽어봅시다.

[계20:7~9] 천 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9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

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 말씀에는 천년기 후에 둘째 부활에 참여한 악인들을 마귀가 모아서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장면을 계시해 준 말씀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 악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이 이 지면에 와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21:2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다고 했지요. 읽어봅시다.

[계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디에 내려왔습니까? 20:9이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지면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한 것입니다. 천국, 또는 하늘나라는 최종적으로 바로 이 지구에 건설됩니다. 태초에 창조한 낙원인 에덴동산, 에덴이라는 말이 바로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 지구 아닙니까. 죄로 더럽혀진 이 지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께서 이 지구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십니다.

8. 그런데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교인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 나라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겠지요. 또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어디에 그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더구나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올라갔다고 했으니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런 표현들을 했을까요?

답: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지금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요. 우리가 4장 공부를 할 때 하늘 보좌 주위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세상이 종결을 고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새 땅이 되게 재창조하시고 그 하늘이 새 하늘이 되도록 재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이 지구로 옮기시고 하나님께서도 이 지구로 오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지만 21:4,5을 읽어봅시다.

[계21:3,4]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새 하늘, 새 땅으로 재창조되고 거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수도가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께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교인들이 오해하는 그런 사상이 생기는 것이지요.

9. 천국이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뜻이 아닙니까?

답: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된 것 같습니다? (관심을 두고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말이 성경 중에 어느 책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신약성경 전반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이 애청자들을 위하여 시침 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엔 38번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에 37번이 마태복음에 있고요, 한 번이 딤후4:18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은 마태복음에 딱 32번 나옵니다. 마태에 5번은 그냥 왕국, 또는 나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 바실레이아를 천국이라고 번역했고 딤후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32번은 천국이나 하늘나라라고 번역해야 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인데 그것을 한 마디씩 직역하면 그 왕국 그 하늘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그 왕국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그냥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것은 왕국이라는 뜻이니까 굳이 하늘나라라고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후 문맥을 살펴서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했는데 그 나라라는 말도 바실레이아입니다.

10. 참 재미있습니다. 왜 마태만 그렇게 기록했습니까? 다른 성경 기자들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답: 다른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했지요. 그것은 “헤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신다는 말씀을 확연히 알게 되지요. 아무튼 우리가 애청자들께서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꼭 들어가도록 예수 안에서 올바른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하시다가 그 나라에서 꼭 만나야 하겠습니까.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계속하지요.

11. 그렇게 되었네요. 기도하고 오늘 이야기는 끝내도록 합시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말씀을 상식에 의하여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성경으로 사실을 확인하게 하셔서 잘못되지 않게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영광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생활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